

[TV]

TV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비, 월드 투어 2중 피소 '설상가상'

하와이 소송 이어 최근 LA에서도 소송 당해... 비측 강력 대응 방침

가수로, 영화배우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본명 정지훈·27)가 외국의 공연 기획사들의 잇따른 소송제기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는 2007년 월드투어 미국 공연 취소에 따른 하와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소송을 당했다. 비의 소속사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11일 "2007년 월드투어 당시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담당했던 프로모터가 공연 취소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주최사 스타그램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현지시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하와이 법원에 피소, 15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비에게는 설상가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비를 상대로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로스앤젤레스의 프로모터는 불성실한 공연준비로 공연이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했고, 비가 명예훼손과 함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는 공연사업자인 주최사, 당시 소속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로스앤젤레스 프로모터와는 업무상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비"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위해 2주 전부터 현지에 도착해 공연준비를 했던 만큼 공연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당시 주최사 등이 관련 증거인 영상, 사진, 문서, 이메일 등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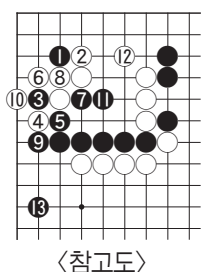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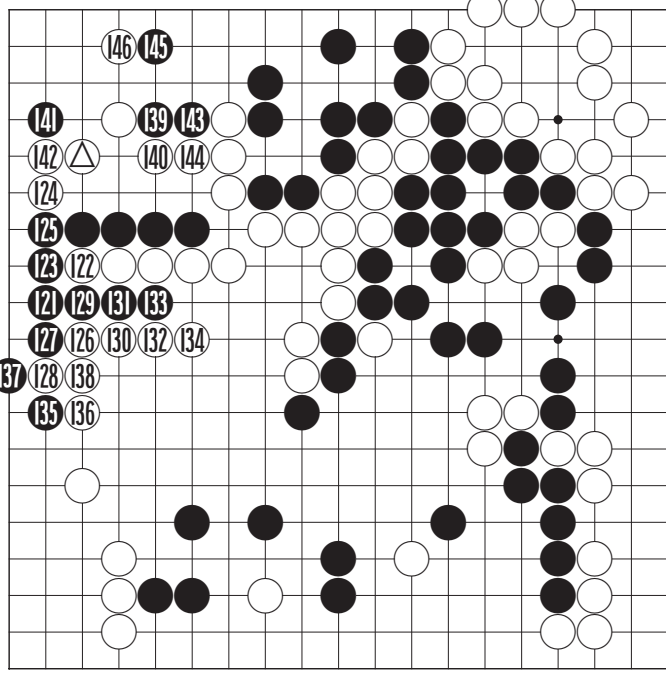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최후의 패착 흑 121

최강부 준결승 2국 8보 (121~146)

白 선계성 6단 黑 오배령 6단



백 △ 공격을 당해서는 흑이 어려운 장면이다. 오배령 6단은 괴로운지 깊은 신음을 흘리며 흑 121로 미끄러졌는데 이 수가 너무 무쾌한 수로 최후의 패착이 되었다.

흑 12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3-상에 쳐 들어가 응수를 물어보아야 했다. 백 2로 받으면 3으로 붙이는 맥점을 이용해 5부터 11까지를 선수한 다음 13까지면 깨끗하게 산다. 또 백 4로 6에 두면 흑이 4에 붙어 역시 쉽게 죽지 않는다.

실질은 백 128로 막혀 가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오배령 6단이 이대로 죽기에는 억울하다는 뜻이 흑 129부터 145까지 반항을 해왔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처열했던 전투의 결말치고는 시커먼 최후다. <규정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program schedule table listing various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listing additional shows.

A large section containing language learning materials: English (Would you care to see it?), Korean (何人様(なんにんさま)ですか?), Riddles (谜语 수수께끼), and a story (秦伯嫁女(진백가녀)).